

# 클로저 이상웅



\* '클로저 이상웅'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주현의 퍼즐월드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 1~9까지의 숫자가 곁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6		7	3		4			
	5	3			7	8		
	7		8		3			
8			6				2	
	4	2		8	3			
3			4				8	
	4		2			1		
	3	5			2	4		
2		1	4				7	

## 스도쿠정답

7	9	4	8	1	6	8	2	
6	4	2	9	7	8	5	3	1
3	8	5	2	6	9	7	4	1
8	6	9	1	4	5	7	2	3
1	7	8	6	3	2	9	5	4
2	5	7	3	9	1	6	8	4
5	3	1	6	8	9	2	7	4
9	8	7	2	1	4	5	3	6
4	2	6	5	3	7	1	8	9

7	9	2	8	1	6	8	9	
5	6	1	4	8	7	2	3	9
3	8	9	6	5	7	1	4	2
4	7	8	1	9	2	8	9	6
8	1	2	6	9	7	4	5	3
6	9	5	8	7	1	4	2	3
2	8	6	4	7	9	5	1	3
9	4	7	9	1	6	8	2	7
1	5	3	2	8	7	9	6	4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5일(수요일) 음력: 5월 30일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용의 날이다. 쥐미는 장성의 기운으로서 용을 만나면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결실의 탑을 쌓는 형상이다. 기본기와 경륜이 탁월하여 자신의 재능 부문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단,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진논개비, 혼란, 운세: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때때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용의 날로서 천살에 해당한다. 천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크건 작건 그 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고 어디에 있어도 편함을 얻지 못한다. 취침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강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월살 또는 고조살이라 해서 씨앗이 발아가 되지 않는다. 결혼식, 개업일 등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는 맞지 않는 날이다. 정신적인 혼미로 인하여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은 상수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끈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 날이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이 험악해지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풀려서 노련하게 실수를 차린다는 뜻도 된다. 느긋한 기다림으로 열심한 뜻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반안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파도, 좌충우돌, 운세: 감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뚫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오늘은 용의 날이다. 흐르던 물이 잠시 간헐한 형상이다. 물이란 항상 흐르는 것이다. 갈보기에 외롭지 않아 보이나 사실은 외롭다. 발전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날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는 고독하나 어느날 갑자기 기를 것이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한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은 모든 일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천살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조용한 상태이다.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뱀은 지살이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하라. 방해물이 없다. 길방: 동
	오늘의 마음: 비바람, 힘들다, 운세: 직장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월살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날 격이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오늘은 주위 환경의 변화로 복권에 당첨되거나 상속이나 묵은 돈이 들어오는 형재수가 있는 날이다. 주변인의 도움이 예상된다. 열심히 움직여라.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 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절제를 해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운이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믿음장을 뜻한다. 진급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오늘은 화개이다. 화개는 종교요, 외로움이다. 예술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장이다. 원숭이는 지살로서 활기차게 시작함을 의미한다. 지살이 화개를 만났으니 외로워지고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맑음, 권태롭다, 운세: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리고 싶은 날이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이란 모든 일이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이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조용함이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신중하고, 문기를 거둬두고,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운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할 것이라,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월살과 화개살이 부딪히는 날이다. 관재, 송사 조심해야 한다. 또한 비밀이 노출 될 수도 있으며 싸움으로도 해석된다. 병으로 보면 위경련이요, 위 수술이다. 오늘은 감정을 자제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간직하는 것이 대처법이다.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싸늘, 외롭다, 운세: 주변 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이해해라.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침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원진살과 귀문관살을 만났다.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인을 원망하며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그러나 용을 만난 돼지띠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버티려는 기운이 생기는 날이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는 날이다. 길방: 서

## 유머

### 대식의 케이크



### 게릴라 전법

모 교수의 시험방범은 엄격했다. 끝을 알리는 종소리 이후 작성 된 답안지는 뺄거렸다 한다. 그런데

한 학생이 종소리가 나고도 계속 답안지를 쓰더니 그것을 들고 성큼성큼 나왔다.  
 "그건 뭘 필요 없네. 학생은 뺄거렸다."  
 "그러자 그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 하지만 자네가 대통령 아들이라도 소용없어."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면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니까."  
 그 학생은 쌓여 있는 답안지 중간쯤에 자기 것을 쑤셔 넣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 요즘 젊은이들의 한자 실력

대학교 선배인 남자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 한 쪽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塞翁之馬(사옹지마)  
 붓글씨로 멋있게 쓰인 글씨를 보고 후배가 물었다.  
 "오빠, 저거 뭐라고 쓴 거예요?"  
 "그러자 남자선배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남기자마"  
 그리고 그들은 식당에서 밥을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다.